

한국원자력학회 제30대 수석부회장 입후보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김명현 (金明顯)
소속	경희대학교
직위	정교수

□ 학력사항 (최종학력사항만 기재)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졸업년도
M. I. T.	Nuclear Eng.	Ph.D.	1988

□ 경력사항 (대표경력 5개 이내)

기간	근무처	부서/직위	담당업무
1983 - 1984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연구
1988 - 현재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교육
2004 - 2008	경희대학교 대학원	부원장	대학 행정
2008 - 현재	경희대학교 원자로센터	센터장	행정, 교육
2011 - 2012	Argonne National Lab.	방문연구원	연구

□ 활동 내역

1. 한국원자력학회 활동 내역

기간	역할	담당업무
1992.11 - 2006.12	한국에너지공학회	편집위원
1997.4 - 2007.8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위원
2003.9 - 2008.8	한국원자력학회	편집이사
2009.9 - 2011.8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
2012.9 - 2013.8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2. 기타 활동 내역 (3개 이내)

기간	역할	담당업무
2011.4 - 2014.12	KBS-TV	객원해설위원
2013.1 - 2014.12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연구추진위원회	위원
2014.10 -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기준위원회	분과위원장

■ Fuel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뜨거운 핵연료처럼 강력한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성풍현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임기 중에 연구년을 신청하여, 학회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사직을 거치고, 학술부분 부회장까지 하면서 학회의 구석구석을 살펴 볼 수 있었고 훌륭한 학회장님들의 지도력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나서서 대응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을 명심하겠습니다.

■ Moderator

지금 원자력계는 미래형 원전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 정책에 대해, SMR에 대해 여러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밖에서의 공격도 무섭지만 우리 내부의 균열은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합치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학회가 만남과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전문위원회를 더 강화하여 우리 안의 다른 입장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상기합니다.

■ Shielding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정치/사회적으로 여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스마트한 인재들이 많지만, 지금까지는 사업과 연구와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고상한 학자들의 모임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제 학회가 중심이 되어, 외부의 강력한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부 정책 Forum과 개인적인 활동가의 헌신이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학회가 해야 할 일을 덜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원전 운동가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대응하는 체제의 구축과 활동은 이제 학회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을 믿습니다.

■ Radiation

원자력을 일컬어 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외부에서 볼 때, 고립된 그들만의 집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원자력학회의 외연을 넓혀 학회가 다른 학문과 교류하고, 다른 학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가는 방사선처럼 국내적으로는 다른 에너지 sector와 또 융합 가능한 타 학회와 교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여러나라 학회와 교류하여 기술수출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개방성과 확장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신 회원분들의 성원과 학회와 원자력을 사랑하시는 회원분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4. 29.

성명 : 김 명 현

